고문서에 나타난 여수지역 통신역사에 관한 고찰 Ⅱ

김천석*

A study on Yeosu area communication history in the old documents Ⅱ

Chun-Suk Kim*

요 약

여수지역에는 옛날부터 통신관련 역사유적과 유물이 봉수대, 솟대, 등대, 거문도 최초 해저케이블 설치 등으로 통신의 역사적 가치가 존재했었다. 옛 고문서에 나타나 있는 이지역의 통신 역사성을 확인하여 통신에 의한 여수지역의 발달을 이해하고 통신역사성의 자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Yeosu area from the old historical monuments and artifacts related communications signal station, directions display panels, lighthouse, Geomundo the first submarine cable installation, etc. That appears in old documents and communications of the area should check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in understanding the Yeosu area and communicate the need to identify resources historicity

키워드

communications signal station, directions display panels, lighthouse
통신 기지국, 봉수대, 등대

Ⅰ. 서 론

여수시는 역사적으로 한국 통신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의 하나이다. 1985년 4월 15일 영국군에 의해 중국 상해와 거문도간의 해저 케이블이 최초로 부설되어 근대 통신의 역사가 한반도의 여수시에서 시작한 것이다. 이는 동축 케이블 1회선으로 단순 수중 포설 방식으로 건설되었으며 현재 거문도에 케이블 육양지점을 보존하고 있으며 1991년 한국통신(KT)에 의해 주민 참여로 현장 복원 사업을 완료한 상태이다.[1] 이러한 역사성과 함께 IT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은 매우 높은 편이다. 거문도에 있는 해저케이블은 국제통신으로서 현대통신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유물이기 때문에 역사적 자원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으며 또한 여수지역에 산재한 정보통신 역사성 확보를 위해 옛 문서에 나타난 여수지역 통신관련 역사성을 가진 문서들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1885년 영국군에 의한 해저 케이블에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여수지역의 특수한 통신역사를 살펴보고, 3장에서 거문도 해저케이블과 지역 통신역사의 발굴 복원을 알아보았으며 4장에서는 고문서를 통한 여수지역 통신을 기술하고, 5장에서 결론으로 끝맺음 한다.

* 전남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kim1000s@jnu.ac.kr)
접수일자 : 2012. 09. 03 심사(수정)일자 : 2012. 09. 20 게재확정일자 : 2012. 10. 05

II. 여수지역의 특수한 통신역사

여수지역에는 옛날부터 통신관련 역사 유적과 유물이 봉수대, 정낭, 솟대, 신호연, 등대, 거문도의 최초 해저케이블 설치 등으로 통신의 역사적 가치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승전지역으로써 난중통신, 신호연, 파발마, 역원 등으로 역사적인 유물과 전적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 관광문화 산업과 연계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통신의 중요성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지역민과 국민에게 공헌할 수 있다.

여수시 봉수대는 봉수의 개관, 여수시 봉수의 특징, 기타 문헌자료를 발굴 조사하여 전시하고 여수시 존재유물 파악 및 주요 현황을 찾아내서 관광화함 특히 제 5봉수로 시발점인 방답진 봉수의 역사성을 검토하고 현지를 답사할 수 있도록 성역화 하고 임진왜란을 승전으로 이끈 난중통신 신호연, 기타 역원, 파발마 등을 개발하여 교육 한다. 그림1은 방답진 봉수대를 그림 2는 백야 봉수대를 나타낸 것이며 표1은 여수지역에 소재한 봉수대 현황이다.

그림 1. 방답진 봉수대
Fig. 1 Bangdapjin Beacon Mound

그림 2. 백야 봉수대
Fig. 2 Baekya Beacon Mound

표 1. 봉수대 현황
Table 1. Present situation of beacon mound

종류	봉수명	
직봉	방답진 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봉수마을 뒤 봉화산 축법 : 석, 토혼축(자연석 및 흑) 규모 :2층 반원뿔형, 높이 7.5m, 하폭 12m 상폭 8m 시대 : 조선
	백야곶 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봉화산 축법 : 석축 규모 : 원통형, 높이 9.5m, 폭 8m 시대 : 조선
간봉	북봉 연대	위치 : 전남 여수시 군자동 산 100번지 망산 축법 : 석, 토혼축 규모 : 5층 8각형, 높이 4m, 상폭 12.5m, 하폭14m 시대 : 조선
	안도상 산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안도리 상산 축법 : 석축 규모 : 반원뿔형, 높이 2m, 상폭 6m, 하폭 10m
	남면망 산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남면 심장리 산 199번지 망산 축법 : 석축 규모 : 원통형
	개도봉 화산봉 수	위치 : 전남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봉화산 축법 : 석, 토혼축
	낭도상 산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상산 축법 : 석축 규모 : 원형, 북서측 높이 2m, 북동측 높이 1m, 동서 폭 5m, 남북 폭 4m
	백야도 옥정산 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옥정산 축법 : 자연바위 시대 : 조선
	달암산 성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대미산 축법 : 석축

		규모 : 원형, 남측 높이 2.5m, 동측높이 1.5m, 동서 폭 11m, 남북폭 8.5m
	만흥동 봉화산 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만흥동 산 84-2번지 봉화산 축법 : 석축 규모 : 타원형, 남동측 높이 6m, 북측 높이 3m, 폭 6m 시대 : 조선
	전봉산 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봉계동 월앙 마을 뒤 전봉산 축법 : 토·석축(바위에 돌을 쌓아 흙으로 돋움) 규모 : 원형, 높이 5m, 폭 13m
	묘도봉화산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묘도동 봉화산 축법 : 석축 규모 : 원형, 높이 3m, 폭 13m
	사림산 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냉천 마을 사림산 축법 : 석축 규모 : 원형, 높이 5m, 폭 9m 시대 : 조선
	진례산 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상암동 도솔암 뒤편 진례산 축법 : 석축 시대 : 조선
	초도상산봉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상산봉 축법 : 석축 시대 : 조선
	손죽도 봉화산 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봉화산 축법 : 석축 시대 : 조선
	여동리 봉수터	위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장도) 시대 : 조선

벅수골 정낭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신앙체인 동시에 경계표, 이정표의 표지통신을 하였으므로 발굴하여 전시하고 여수시의 연등동, 거문도 등에 많은 유물들을 발굴하여 전시한다. 벅수, 솟대, 정낭을 각각 그림3, 4, 5에 나타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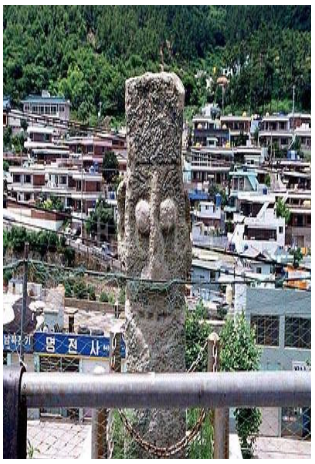

그림 3. 벅수
Fig. 3 Directions display pan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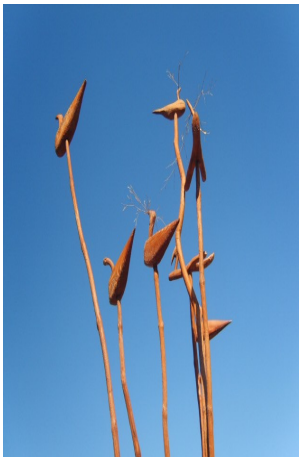

그림 4. 솟대
Fig. 4 Wake of the flood using display panels

그림 5. 정낭
Fig. 5 Signal fence

거문도 해저케이블은 한국 국제통신역사의 시초섬으로 개발 하에 관광화 및 교육장으로 활용 할 수 있다.

1885년 거문도-중국(상해)을 있는 동축케이블 1회선을 이용하여 통신하였으나 어선작업으로 유실등 존재가 불투명함으로 찾아내어 보존하고 역사화 하여 산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포설방식은 케이블 단순 수중매설 방식인데 이를 연구하에 통신방식을 선진화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은 거문도 해저 케이블 육양지점이고 그림7은 해저 케이블 표지석이다.

그림 6. 거문도 해저 케이블 육양 지점
Fig. 6 Geomundo yukyang where submarine cable

그림 7. 해저 케이블 표지석
Fig. 7 Submarine cables for the display turns

III. 거문도 해저케이블 등 지역 통신역사 발굴·복원

3.1 거문도 역사

거문도가 일본 측에 주목된 것은 이 주변 해역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최고 어장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중세에 이르러 일본과 고려, 또는 이씨조선과의 사이에 통상무역은 중개업으로 쓰시마 · 소씨가 거의 독점적인 이익을 부리게 되었으므로, 조선 측에서는 일본선 입항지를 제한할 필요를 느끼고, 1426년 (세종 8년) 정박지를 부산포(釜山浦), 제포(薺浦, 내이포 지금의 웅진), 염포(塩浦, 울산) 등 3포로만 하고, 각 지역에 왜관을 두었다. 처음에는 삼포에 일본인이 거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오는 항선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체류 일본인이 눌러 앉게 되었으며, 또한 상인이 유녀를 포함하여 거주하면서 풍속을 흩뜨려 놓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측은 어쩔 수 없이 1436년(세종18년) 3포를 통틀어 60호 266명으로 제한하여 거주를 인정하게 되었고, 이를 조선 측에서는 항거왜인이라고 불렀다. 이때, 경상도 지방장관인 감사는 “ 이것은 마치 큰 뱀을 거실에 놓아두는 것과 같다.”고 하며 반대의 뜻을 주장했지만, 조정은 들어주지 않았다. 이 해의 조사에 따른 일본인 수는 3포에서 664명이나 되었다. 결국 378명이 돌려보내졌지만 머지않아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 거의 제한수의 7~8배가 살았다. 1441년(세종 23년)이 되자 조선 측과 쓰시마 섬주 사이에 ‘고초도조어금약(孤草島釣魚禁約)’이 협약이 되었다. 이것은 고초도, 즉 거문도 주변 해역에서 무단조업을 금지하는 대신에 조업자에게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으로 그야말로 거문도 주변은 삼포와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온 일본 어선들로 뒤범벅이 되어 남획하였다.

조약에 의하면 일본 어선은 쓰시마 섬주가 발행한 도항증명인 ‘문인(文引)’을 지니고 다니며 일단 거제도의 지세진에 가서 다시 조선 측의 ‘문인’ 을 뚫으면 고초도행이 허가되었다. 고기를 낚은 뒤 돌아갈 때에는 다시 거제도에 들러 세금으로 일정량(세어)을 내야만 했다. 그런데 이 ‘문인’을 소지하지 않고, 무단어업을 한 일본 어선이 끊이지 않자 조선측은 소리를 내어 대책에 힘을 썼다. 한편 왜구의 출몰도 여전했다. 당시 일본과 조선의 배 구조의 차이는 일본은 나무를 자른 뒤 잘 건조시킨것을 사용한 반면 조선의 배는

생나무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배가 떠 있으면 일본배가 훨씬 강도가 뛰어났으며 상당한 파도에도 불구하고 헤쳐 나가며 항해할 수 있었다.

고초도라고 불러진 거문도의 주변 해역에서 잡은 고기는 도미나 광어인 고급 생선부터 삼치, 갈치 등 대중적인 생선, 또한 새우, 전복 등으로 상에 올리면 최고의 진미가 되는 것이므로 삼포에서 나온 어선은 이러한 어획으로 윤택했다. 어획의 방법은 낚시가 주체이고, 망에 의한 일망타진의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또 삼포에서는 관의 눈을 속이는 무역도 한층 성하게 되었다. 이에 조선측이 삼포에서 사무역(밀무역)의 금지와 항거왜인의 단속에 나서자 삼포에 있던 항거왜인들은 쓰시마 섬주에게 응원을 요구하면서 갑자기 반란을 일으켰다. 쓰시마 측은 병선 200여 척을 보냈고, 반란을 하는 항거왜인은 부산포, 제포의 군사 거점을 점거하고 관리인을 살해하기도 하였지만, 조선군의 반격을 받아 일본 측의 패전으로 끝났다. 이것이 세간에서 말하는 1510년(중종5년)'삼포의 난' 이다.

그 후부터 '문인'에 의한 고초도 주변 해역에서의 일본선 조업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거문도가 왜도라고 불렸던 것은 마츠라 당과 같은 일본 해적이 출격기지로 사용했다는 점과 또한 삼포시대에 일본 어선이 주변해역에서 조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원래는 여기가 무인도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인접한 서도와 동도에는 예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 가운데에 있는 거문도에도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결코 이상하지 않다. 개간하면 어느 정도 평지를 확보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도였다고 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고려조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이씨조선 왕조가 왜구대책을 위해 여기에서는 사람이 일절 살 수 없게 공도정책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고려, 이씨조선이 왜구대책으로 가장 고심한 것 중의 하나는 조선반도 남해에 사는 자가 일본인의 앞잡이가 되어 길안내를 하는 것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큰 섬들만 사람을 살게 하였으며, 또한 감시를 쉽게 할수 있는 대집단 부락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조선반도 남서부의 다도해에 수많은 무인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거문도의 공도정책도 그 일환이었다. 현재의 조선반도 지도를 보면 한국의 도시가 거의 내륙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 대구, 광주, 경주, 대전, 청주, 춘천 등등. 바다를 접한 부산의 거리는 대부분 일본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부는 대대로 바다로부터의 외적 침입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풍수지리설에 의해 이 거문도에 사람이 사는 것은 재앙이 있다고 많이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풍수지리설이란 중국의 삼국시대에 확립되었던 지상학(地上學), 택상학(宅相學), 묘상학(墓相學)으로 신라 말부터 고려 초에 걸쳐 도입 · 보급되었기 때문에 고려조에서는 사찰 건립과 관련하여 중요시 되었으며, 이조 이후에는 자손의 번영을 바라는 선조 묘소 선정에서 중시되었다. 이것은 인간에게 미치는 땅의 기작용을 믿고 산, 언덕, 강 등의 지세를 관찰하여 이에 따라 음양오행이나 방위 등을 생각하여 가장 길상인 땅을 고르는 것이다. 그 길상의 땅이 명당이라고 불려진다. 즉, 이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거문도는 명당의 땅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설을 굳이 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재앙을 알림에 따라 거문도에서 뭔가 이익을 독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이익이란 예를 들면 섬 주변에서 채취하는 조개나 해조류 등의 해산물, 또는 밭의 수확물일지도 모른다. 옛날 일본에서도 시골아이가 산에서 복숭아나무를 발견하고 있는 장소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예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 생각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거문도는 일주하여도 겨우 4km 정도이다. 물론 현재도 섬을 일주하는 도로는 없고 배로 주변을 돌 수밖에 없지만 물이 콸콸 쏟아지는 곳이 가는 곳마다 있다. 살아가기에 근사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조선 시대는 일본의 침입을 막는 엄격한 쇄국시대였으며 거문도는 왜구가 지나간 뒤 무인도인 채로 깊게 잠들어 있었다.

거문도는 1885년 영국군이 무단 점령하여 2년간 주둔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섬이 되었다. 1885년 4월 14일 영국 해군성에서는 나가사키 근해를 향해 중이던 도웰 중장에게 전문을 보내 거문도를 점령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도웰은 아가멤논, 페가수스, 파이어브랜드 호 등 3척을 인솔하여 4월 15일 거문도의 한 섬인 고도로 입항했다, 기함 아가멤논 호

는 8500여 톤이나 되는 장갑함이었고, 3척에 실린 대포만도 전부 합해 76문이나 되었으며, 승무원은 717명에 달했다, 이러한 대규모의 병력 구성으로 보아 점령군의 성격이 명백했으며, 따라서 선전포고나 사전 어떠한 양해도 없이 주권국가의 영토를 점령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침략행위요 불법주둔이었다. 영국군들은 이 섬의 최고봉인 망치산 정산에 영국기를 게양하고, 관측소를 설치한 뒤 이 섬을 업저버터리 아일랜드라고 명명했다.

국기 게양은 러시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러시아 군함의 입항 시 까지 국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다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호가 거문도 부근에 정박하고 떠나고 난 뒤 국기를 게양했다. 이어 장기 주둔할 준비로 임시 막사를 설치했고, 밭을 임대하여 식료품을 조달했으며, 임시 폭탄저장 시설도 완공했다. 그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스턴 텔레그라프 사에서는 당시 극동주둔군 사령부가 있던 상해와 거문도간의 해저케이블을 가설했다. 당시로서는 매우 놀랄 만한 이 케이블의 흔적이 아직도 목책과 함께 거문도에 남아 있다.[2]

3.2 거문도 해저케이블의 현황 및 평가

1885년 영국군의 의해 거문도와 중국(상해)간 해저통신 케이블을 부설 했으며 1992년도 현장정비사업 시행(KT주관) 하였다. 그리고 현재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116-2 전 $205m^2$ 국유지(기획재정부 소유)이며 우리나라 근대토인의 현존하는 최초의 유물, 현대 통신의 발원지이며 근대 해상통신의 요충지, 근대 국제교류의 역사적 현장, 영국군에 의해 시설됨, 한국(거문도), 중국(상해)간 최초의 통신 케이블시설, 일본(사세보), 중국(대련)간 해저케이블 시설이다.[3]

Ⅳ. 고문서에 나타난 여수지역 통신관련 내용

4.1 근대한영해양교류사

영국주둔군은 거문도에서 통신을 원할 하게하기 위해서 중국에 진출해 있던 영국계 전신회사 Eastern Telegraph사의 상해와 홍콩간 해저전선을 거문도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시행하고는 전신요원으로 동사소속 전신기사 MacPherson과 Weeks를 상주시키면서 경보병대 막사 아래쪽에는 다시 일본인 세탁부용 막사, 경비실 전보통신실이 배치되었다.

태풍으로 인하여 정박 중인 포함 HMS Merlin호(430톤 승조원 67명)가 정박지를 이탈하면서 앵커가 부설된 해저전선을 절단해 버린 사고가 함께 발생했다. 거문도 주둔해병대는 극동 함대본부가 있는 홍콩과의 교신은 이 해저전선을 주로 이용했는데 영국군은 파괴된 해저전선을 다시 복구하지 않고, Eastern Telegraph전신기사 MacPherson과 Weeks를 1885년 11월 홍콩으로 철수 시켰다. 영국이 파괴된 해저전선을 복구하지 않고 1885년 11월 전신 기사를 거문도에서 철수시켰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영국이 이미 1885년 11월부터 거문도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고자 했다는 것은 1885년 9월 거문도에 불어 닥친 태풍으로 인해 해저전선이 파괴되자 복구를 포기하고 Eastern Telegraph사 전신기사 2명도 홍콩으로 철수했다.

주둔 영국군들의 서신은 일단 거문도에 보급차 기항하는 군함이나 상선 편으로 전달되어 본국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전한 서신 속에는 적지 않게 현지민들의 생활상과 기이한 풍습이 소개되어, 사태의 심각성에는 관계없이 널리 유럽사회로 퍼졌다.

영국정부는 복구를 포기했다. 군사기지로서 통신망은 신경조직과 같아,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태풍으로 파괴되었다 해서 복구를 포기하고 전신요원을 철수시켰다는 것은 이미 영국은 거문도 철수를 기정사실로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다. 물론 영국 국립문서보관소 Public Record Office에는 당시 주둔군 부대가 본국정부에 보고한 고문서 중에는 적지 않은 자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한국에는 소개된 바가 없었다.

거문도의 사진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는 110년 전 조선인 모습과 거문도를 통한 당시의 조선 사회상을 생생하게 접할 수가 있다. 이 귀한 110년 전의 역사사진 자료는 현재 영국 Greenwich 소재 국립해양박물관(National Maritime Museum)에 원본이 소장되어 있다.

거문도와 본국간의 서신 연락은 나가사키나 홍콩에서 보급차 기항하는 군함이나 상선 편으로 전달되었는데, 오늘날 실물이 확인된 것으로는 해병 부대장

C.G Gordon 대위 부인이 미국에서 보낸 편지 10통이 발견되어, 주둔 영국군의 서신 전달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그중 1통은 Gordon 대위가 본국으로 귀국하고 난 후에 거문도에 도착하여 반송된 것으로, 그 경로와 일자는 다음과 같다.

C.G Gordon 대위의 부인은 남편이 해외 파병근무를 하게 되자 친지가 있는 미국으로 가서, 거문도에 파견되어 있는 남편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다. 미국에서 보낸 이 편지들은 태평양을 건너 요코하마에 도착, 다시 나가사키를 통해 거문도로 전달되었다. 영국에서 거문도 주둔군에게 보내는 서신은 일단 홍콩으로 보내어 다시 나가사키를 경유하여 거문도로 전달되었다는 사실도 이 서신의 유통 경로를 통해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거문도에서 본국으로 보낸 주둔 영국군의 서신이 발견된 바는 없었다. 이 Gordon 대위 부인이 보낸 편지가 반송된 경로를 미루어 보아, 주둔군의 서신 연락통로는 이 반송로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영군은 근대우편제도가 실시된 지도 45년이나 되었고,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해외 주둔군에게는 본국의 가족들과 서신 교환을 할 수 있는 통신망이 잘 조직되어 있던 시절이다.

아국 경략사 이원회가 거문도를 시찰하고 와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영국군은 완전 철수했으나, 귀국 소유의 전선이 그대로 묻혀있다. 이는 원래 해저를 통해 상해로 연결되는 전선이었으나 현재 중단되어 있다.[4]

4.2 국외의 거문도 시각

거문도 생활에 관한 영국인들의 기록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주한 영국공사관 한국어학생 스콧트씨가 쓴 보고서이다.(1885년 8월 거문도방문 작성)

영국 해군의 거문도 공사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항구의 좁은 두 입구를 가로지르는 방책(boom)을 건설하였고 양자강 입구의 쌔들 아일랜드(Saddle Island)에서 통신수단으로 중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 케이블까지 설치 연결하였으나 1886년 1월 이후는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영국 외무성은 이미 거문도에서 철수를 결심한 후라 이 고장난 케이블의 수리비를 지불을 거절하여 영국해군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버렸다. 이들은 또 병원, 막사를 지었고 고도에서 조그만 보트가 정박할 항구, 부두, 방파제, 도로, 2개의 나무로 된 창고, 전보 송수신실, 사무실 등을 지었다.[5]

거문도 사건의 다양한 시각

특히 1997년 4월 2일 출판된 김재승의 근대 한·영 해양교류사에 보면 한·영 해양교류 및 거문도 사건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그 외에 거문도의 향토사학자 곽영보의 거문도 풍운사에 보면 거문도 주민들의 영국해군에게 가졌던 감정이 소상히 서술되어있다.

경락사 이원회가 돌아온 후 김윤식 독관이 영국의 총영사 워터스에게 영국군 철수 후의 거문도 현상을 알리는 조회공문 내용을 보면 “본국 경락사 이원회가 거문도에 나아가 그 지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국의 수사는 완전히 철수되었으나 귀국 소유의 전선이 전화국 옛터에 묻혀있었다.

거문도 위도에 건설된 영국해군 막사

현 거문초등학교 자리. 제일 상단부 큰 건물이 장교 숙소와 식당이며 그 옆이 시체안치소 및 창고—중단부에 해군 식당, 매점, 보급창고, 의무실, 본부건물이고 하단부에 경보병대 막사2개, 포병대용 막사 1개가 있고 하단부 3동은 전보통신실, 경비실, 세탁소 등이다.

4.3 근대문화유산전기통신(우정분야)분야 목록화 조사 보고서

영국의 거문도-상해간 해저전신선 부설거문도는 대한해협의 문호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러시아 동양함대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이다. 영국군함 3척이 거문도를 처음 점령한 것은 1885년 4월 23일의 일이었는데 그들은 곧 병영을 세우고 포대를 쌓는 등 거의 영구적인 요새시설을 갖추는 한편, 중국 상해에 이르는 해저전선을 부설하여 그 군사시설을 강화하였다.

영국은 거문도를 점령한지 2년이 지난 후인 1887년 2월 27일에 철수하였다. 그동안 우리정부의 거듭된 항의와 청국의 중재 결과였다. 당시 영국은 청국의 주선으로 어떠한 나라도 조선의 영토를 점유하지 못한다는 다짐을 러시아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영국군의 군사시설로서 2년 동안 사용된 거문도, 상해간 해저전선은 영국군의 철수와 함께 없어졌다.[6]

현재 우정성(郵政省) 체신종합박물관 등에 보존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거문도와 쓰시마 사이의 해상을

군함이 다니며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 제 3함대의 기함인 '엄도(嚴島)'에서 연합함대기의 '삼립(三笠)'과의 사이, 또는 다른 함대와의 사이에서 무전내용을 표2에 나타내었다.[7]

표 2. 무전내용
Table 2. Radio content

시각	발신	수신	전신문
05:05	엄도	삼립	타타타 적 함대를 봐라
05:20	삼립	엄도	적함대의 위치를 가리켜라
05:35	삼립	출운(出雲)	즉시 출항준비
05:40	엄도	삼립	적함대의 위치를 가리켜라
05:50	추진주 (秋津洲) (입치경유)	엄도	적은 동수도를 통과할 것 같다
06:00	삼립	출운	바로 닻을 올리고 출항해라
06:06	엄도	삼립	적 함대 203지점 500(오전5시)

4.4 국제전신사업의 창시 : 영국의 거문도·상해간 해저전신선 불법 부설

일본에 의해 해저전선 부설과 아울러 1885. 5월 초순에 중국과 중국 상해를 연결하는 해저전선을 가설한 사실도 간과할 수가 없다. 거문도 해저전선은 남해의 고도에 부설된 영국의 군용전선으로 우리 국민의 통신 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시설이었지만 부산구설해저전선과 더불어 서로전선의 가설 이전에 이 땅에 설치된 전선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없다.

거문도 해저전선은 이른바 영국해군의 거문도(Hamilton) 점령으로 말미암아 부설되었다. 갑신정변 이후 청국의 간섭과 압력이 격심해지자 왕후 민씨를 중심으로 한 조선의 정계는 청국의 간섭을 싫어하게 되었고 이러한 틈을 타서 노국공사 위베르는 궁정 내에 친로세력을 크게 부식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노국의 보호를 청하는 비밀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육로통상조약을 맺어 국경을 통한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나아가 원산과 절영도에 저탄소를 설치하는 등 그 진출이 현저하였다. 이러한 노국 세력의 남하는 당시 세계 각지에서 노국과 대항하고 있던 영국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위협이었다. 그러므로 영국은 동양함대를 파견하여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함으로써 노국 세력의 진출에 대처하였다.

영국군함 3척이 거문도를 처음 점령한 것은 1885. 4월 23일(양력)의 일이었는데 그들은 곧 병영을 세우고 포대를 쌓는 등 거의 영구적인 요새시설을 갖추는 한편, 중국상해(양자강구의 저안도 ; Saddle Island)에 이르는 해저전선까지 부설하여 그 군사시설을 강화하였다. 이 해저선의 부설 비용과 시설은 영국 정부가 부담하였음은 물론 또 가설을 위한 사전 허가를 우리 정부나 청국 정부로부터 받지도 않았다. 그러나 동년 5월 18일에 청국 정부로부터 사후 승인 받았다 하니 그동안에 얼마나 완공을 서둘렀던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영국군이 거문도에서 철수하였다는 보고에 접한 우리 정부는 경략사 이원회를 보내어 그 진상을 조사하게 하였다. 이원회는 복명서를 통해 전선 1조가 전신국의 구허에 매몰되어 있고 그것이 상해로 통하는 해저전선임에 틀림없으나 이미 중단된 상태라고 보고하였다.

영국군은 군사시설로서 2년 동안 사용된 거문도·상해간 해저전선은 영국군의 철수와 함께 없어지고 말았다.[8]

4.5 거문도의 국제 전신전화

전기와 함께 거문도가 우리나라 근대문물의 발원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국제 전신전화였다. 국제전신전화가 첫 개설된 것은 1884년 2월 일본에서 부산국설 해저전선을 설치하면서부터다.

거문도는 이듬해인 1885년 영국군에 의해 거문도와 상해를 연결하는 해저 전선을 놓음으로써 국내 두 번째로 국제 전신 전화를 설치하는 지역이 된다.

이 전화는 영국군이 철수하면서 철폐되었다가 1904년 1월 일본의 사세보와 거문도, 중국 대련 사이에 해전 전선이 부설되고 같은 해 9월에는 사세보-거문도-철원반도 사이에 4천여km의 해전 전선이 소통된다. 12월에는 거문도와 제주도를 연결함으로써 통신망의 요충지가 된다.[9]

Ⅴ. 결 론

정보통신과 교통의 눈부신 발달로 지역적 특수성이 거의 다 무너지고, 지구촌이라 불릴 만큼 국가 간의 간격도 지척과 다름없으니 이러한 논의는 오히려 적폐로 치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역사와 문화에는 버려야 할 인습보다는 계승해야할 전통이, 고단한 삶의 방편보다는 신나는 생활의 지혜가 더 많이 담겨있다. 아무리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이어 받고 발전시켜 여기에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다른 주장이 없을 것이다.

오늘날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유산이나 전통 문화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화훼·곤충·식물 등의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연극·인형극·영화 등과 같은 현대적 문화 소재를 볼 걸이·즐길 거리·먹 거리 등으로 가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관람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10]

여수의 대표적인 행사에는 향일암 일출제, 영취산 진달래행사, 검은모래 눈뜨는날, 참장어 요리행사, 남해안 생선요리 행사, 거문도 풍어제, 거북선축제, 고막행사, 홍합행사 등이 있다. 이러한 행사가 얼마나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 작업이 필요하지만 문화 행사만 보자면 거북선축제와 거문도 풍어제 뿐으로 아직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행사는 미미한 편이다. 그러므로 여수지역의 새로운 통신역사 유물을 발굴하여 전국 최초의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며 인터넷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휴대폰 소비자가 35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통신의 발전은 전파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범세계적으로 전파환경의 변화와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확보, 배분 등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수의 2012년 해양 박람회 시설물 사후 활용방안의 하나로 통신역사 박물관이나 또는 기념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사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1885년 영국군에 의해 가설된 해저 케이블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고문서에 의한 고증과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참고 문헌

[1] 여수시 정보통신과, “거문도해저통신보고서”, pp. 5-6, 2008.
[2] 여수시 정보통신과, “통신역사박물관 건립자료”, 여수시, pp. 7-8, 2008.
[3] 신현식, 김천석, “여수시 통신 역사박물관 설립 계획에 관한 고찰”,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5권, 2호, pp. 110-111, 2010.
[4] 김재승, “근대한영해양교류사”, 인제대학교 출판부, pp. 45-125, 1997.
[5] 박영숙, “서양인이 본 꼬레아”, 삼성문화재단, pp. 63-85, 1999.
[6]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전기통신(우정분야)분야 목록화 조사 보고서”, 2007.
[7] 여수해양문화보고서, “한국 거문도의 일본 마을”, pp. 62-63, 2011.
[8]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100년사(정보통신 사이버역사관)”, 12월, 2004.
[9] 남해안 신문, “태고의 신비 섬을 찾아서”, 2005.
[10] 김천석,“ 고문서에 나타난 여수지역 통신역사에 관한 고찰”,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6권, 5호 pp. 603-610, 2011

저자 소개

김천석(Chun-Suk Kim)

1980년 9월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사)
1982년 9월 건국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석사)
1998년 경남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박사)
1982년~2006년 2월 여수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교수
2006년 3월~현재 전남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수중통신, 정보통신분야